

워드프로세서, DTP, 에디터

초 근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은 물론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원고지와 펜 대신 워드프로세서 전용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추세다. 다른 도구와 달리 워드프로세서는 각종 편집기능을 통해 문서 작성을 편하게 해주고 문서를 보관하거나 정리하는 데도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는 에디터(editor)와 워드프로세서(wordprocessor), DTP(DeskTop Publishing) 세가지로 나뉜다.

에디터는 워드프로세서보다 편집기능이 떨어지지만 간단한 종류의 문서나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에디터가 발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다기능의 에디터를 선택하는 추세며 워드프로세서에 버금가는 기능을 지닌 에디터도 가끔 있다. 또다른 종류의 글틀인 탁상출판용 소프트웨어(DTP)는 간단한 인쇄물을 만들 때 인쇄소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편집기능을 제공한다. D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도 그에 비례해야만 한다.

초보자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글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멍뚱그러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어서 주저하게 된다. 그림을 몇개 넣고 잡지나 신문처럼 지면을 반으로 나눠 2단편집을 하는 거의 DTP 수준의 사용자가 있는가 하면 에디터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무턱대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활용목적 및 능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성능이 뛰어난 고가의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한 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만한 자세로 에디터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요즘은 워드프로세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경우 2, 3년이 지나도 개정판이 만들어 지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새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는 경우 기능과 사용환경을 확인하는 외에도 제작사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확인해야 한다.

시장에서 판매는 되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워드프로세서로는 슈퍼스타워드 으뜸글 쪽박사 한글2000워드 인포워드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많지 않은 DTP로는 하이퍼프레스 I, II를 꼽을 수 있다. 에디터의 경우 최근 통신망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산'(박규현)이나 '하늘'(하늘소)같은 에디터도 선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고 싶은 사용자라면 이런 공개소프트웨어도 한번 선택해볼만하다.

한글 국산 워드프로세서의 대명사

- 개발자: (주)한글과 컴퓨터
- 문의처: 475-4927
- 가 격: 2.0 일반용(8만원), 2.0 전문용(25만원), 2.0 한자 확장(5만원), 1.52 도트용(5만9천원), 1.53 워드검정용(3만5천원, 이상 부가세 별도)

워드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국산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한글은 논문 등 다양한 문자와 문장장식을 쓸 수 있으며 각종 목차와 각주 등을 제공하므로 학생 및 일반사용자에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92년 7월 2.0판이 발표되면서 각종 기능이 부가되었고 새로운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한글은 현재 상가번들용 1.52판과 워드프로세서 자격검정시험용 1.53판의 두가지 1.5판 제품과 2.0판 일반용, 전문용이 판매되고 있으며 93년초에 보급용과 경인쇄용이 선보일 것이라 한다. 또 전문용 한자확장팩도 발매되고 있다. 1.5판 한글은 글자크기의 제한이 있고 편집화면에서는 그림을 볼 수 없는 등 기능제한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편집할 수 있고 XT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0판은 탁상출판(DTP)적인 부분을 많이 추가하여 다양한 글자크기, 미려한 글씨체, 다단편집, 스타일 기능 등을 제공한다. 명조 고딕 샘물 필기체의 4가지 기본 한글 글자체 외에 신명조 중고딕 견명조 견고



92년 7월에 발표된 한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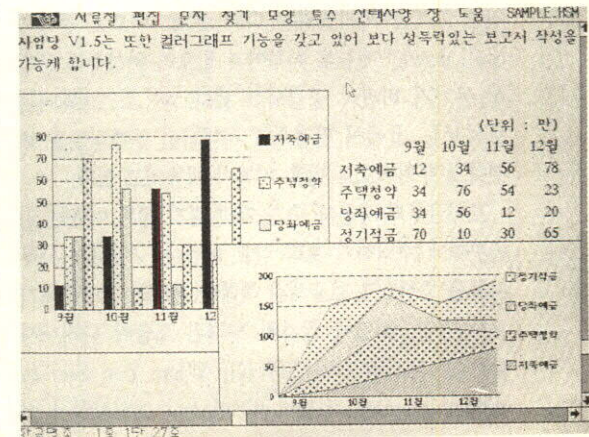
딕 궁서체 등 5가지 자형이 추가됐고,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도구로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각주, 미주의 기능이 보강됐으며 도표편집기, 수식편집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한글 철자법 검색기를 제공하며 화학식, 히브리어 등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전문분야에서 꼭 필요한 언어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층이 두텁다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으로 새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글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임당 컬러 지원하는 그래픽워드프로세서

- 개발자: 한컴퓨터(주)
- 문의처: 한컴시스템 (554-3321)
- 가 격: 도트용(8만8천원), 레이저프린터용(22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데스크젯용은 일반에 판매하지 않음.

다단편집이나 그림편집 및 다양한 크기의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워드프로세서인 사임당은 규모가 크지 않은 단체의 회보나 그래프가 삽입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합하다. 특히 그림 편집기능을 확



한컴퓨터는 92년 12월 사임당 2.0을 발표했다. 사진은 1.5판 화면

용하면 아름다운 문서를 꾸밀 수 있다. 부가되는 고급기능들이 많으므로, 워드프로세싱의 기능을 즐기면서 주소록도 관리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다면 사임당이 적격이다.

사임당은 92년 3월 1.3판이 발표됐고 93년초에 2.0판이 발표될 예정인데 국내최초로 컬러 프린터를 지원하는 컬러 그래픽워드프로세서다. 사임당 1.5판에는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그래프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업무용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형이나 완성형의 문서는 물론, 행정전산망 워드프로세서인 '하나'와 훈글의 문서를 읽어들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한번 한자변환을 해주면 그 단어가 자동적으로 한자사전에 저장되는 기능, 자동으로 괄호안에 한자를 추가해 주는 기능 등은 사임당만

이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사임당은 워드프로세서 기능 못지않게 각종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주소록과 책꽂이 기능이다. 책꽂이는 여러개의 문서를 '책만들기'라는 기능으로 지정하여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며, 디베이스 파일과 호환이 되는 주소록은 웬만한 명함관리 소프트웨어보다 나은 기능을 제공한다. 손글씨체와 유사한 파도체가 한글과 영문 모두 지원되는데 명조체도 다른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상당히 미려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학술논문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각주기능이 아직 지원되지 않으며, 한 파일당 편집할 수 있는 최대문서크기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프린터에 따라 레이저용 도트용 데스크젯용으로 구분된다.

보석글V 문자 모드에 강점

- 개발자: 삼보컴퓨터
- 문의처: 390-2114
- 가 격: 4만9천원(부가세 포함)

보석글의 역사는 우리나라 워드프로세서의 역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쓸만한 워드프로세서를 찾기 힘들던 시절 삼보의 보석글 I, II는 사용자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최근에는 보석글V가 공급되고 있다. 보석글V는 기존 보석글 시리즈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풀다운(pull down) 메뉴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성형과 조합형 두가지 버전이 공급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보석글 I, II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많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보석글V의 사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는 일반판매에 주력하기 보다 삼보 제품을 구입하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보급해간 독특한 판매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면에 글자의 확대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등 위지위그(WIGIWI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기능이 약하다거나 그림삽입이 되지 않는 단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글V는 텍스트(문자)모드에 관한한 다른 어떠한 워드프로세서에도 뒤지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논문 같은 긴 글을 작성하기에 적합하다.

가령 보석글V의 세로선 보정기능을 보면, 일반 문서를 인쇄할 때 동일한 문서라도 프린터의 세팅(setting)상태에 따라 세로선이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보석글V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편집화면에서 직접 글자의 크기나 속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신 강력한 '인쇄전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간이 위지위그를 느낄 수 있다. 한자사전과 관련해 사용자가 자신의 한자사전을 별도로 관리하게 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최근 DTP 소프트웨어인 문방사우 기능 일부와 보석글의 장점을 딴 한글 윈도우용 '보석글 프로'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아직 시중에 시판되지는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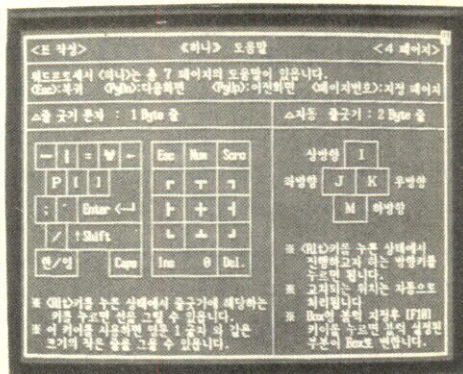
하나워드프로세서 행정전산망용으로 각광

- 개발자: 금성소프트웨어
- 문의처: 705-3891
- 가 격: 하나워드(4만5천원), 하나워드II(9만원, 이상 부가세 별도), 실기검정용 하나워드(1만9천5백원, 부가세 포함)

하나 워드프로세서는 행정전산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각종 문서양식 작성용으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워드프로세서다.

사임당이나 훈글 등이 자체적인 한글 입출력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는 한글 도스(DOS) 또는 외부 한글카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XT급 교육용 컴퓨터에서도 별 무리없이 작동되는 장점이 있다. 한번에 99페이지짜리 문서밖에는 다루지 못하지만, 2.82판부터는 큰 글자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순한 메뉴와 사용하기 간편한 다단편집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워드프로세서와 비교가 안될 만큼 도표 기능이 막강하다. 도표 자동 그리기 기능, 도표 보호 기능 및 도표 속의 숫자들을 계산해주는 도표내 연산 기능 등 기본 기능은 물론, 이미 작성된 도표에서 문자만을 남기고 패션을 삭제하는 기능이나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도표의 문자만을 지우고 패션을 남기는 기능등은 다른 워드프로세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라 하겠다.



문서작성기능이 뛰어난 하나 워드프로세서

최근 선보인 두가지 제품 가운데 워드프로세서 자격검정용 '하나'는 시험규정에 맞게 도표내 자동선그리기 기능들을 추가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제품이다. 또 '하나워드II'는 기존 '하나'워드의 기능을 대폭 보강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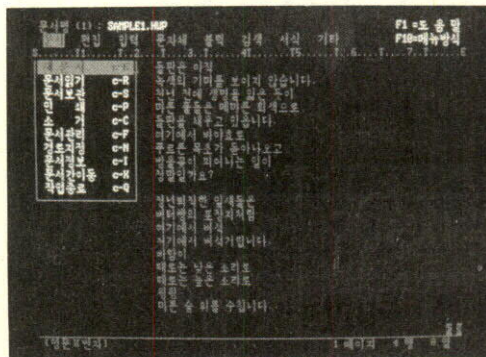
자체 한글 입출력부분을 지니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들과 달리 텍스트모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서파일의 크기도 작고 프로그램 역시 플로피디스크 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워드프로세서들이 풀다운 메뉴와 선택상자로 메뉴방식을 지원하고 윈도우즈용의 경우 아이콘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하는데 비해 명령어와 핫키(hot key)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하나 워드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사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

팔란티어 큰 문서 편집에 적당

- 개발자: 한국팔란티어
- 문의처: 785-0597
- 가 격: 팔란티어, 팔란티어G(5만5천원, 부가세 포함)

팔란티어는 IBM PC가 보급되던 초기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워드프로세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달리 메뉴나열방식으로 메뉴와 기능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풀다운 메뉴방식으로 구조가 변경된 팔란티어 G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워드프로세서들이 풀다운 메뉴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뉴나열방식을 낙후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서파일을 편집할 때 필요한 부분만을 메모리로 읽어들이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의 여유공간에 위치시키는 디스크베이스(diskbase)방식을 사용하여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문서크기를 제한없이(하드디스크의 여유가 있는 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때 효성컴퓨터 등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납품되기도 했다.

팔란티어의 장점으로는 2백50자씩 36개의 상용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문단정렬기능이 조금 미약하지만 메일머지, 특수문자입력, 주석기능 등도 지원된다.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중 하나와 더불어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워드프로세서다.

한편 동일한 이름이지만 프로그램의 메뉴체제가 다르고 제공하는 기능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팔란티어 G' 워드프로세서도 한국팔란티어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기존의 팔란티어가 외국 프로그램을 한글화한 것과는 달리 팔란티어G는 자체기술로 개발한 워드프로세서로서 기능은 팔란티어와 별반 차이를 볼 수 없지만, 메뉴의 구성방식이 풀다운이라는 점, 두개의 문서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등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팔란티어G는 도표기능이 뛰어나 선그리기기가 쉽고 이미 작성된 도표의 크기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만들어 놓은 도표도 쉽게 변형할 수 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백상워드프로세서 1년 만에 안정을 찾아

- 개발자 : 백상소프트웨어
- 문의처 : 711-5287
- 가 격 : 도트용(9만3천원) 데스크젯용(14만5천원) 레이저용(22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윈도우즈용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의 훈민정음



91년 동국대에 재학중이던 김균영씨(물리 4)가 개발해 한때 장안에 화제가 된 백상워드프로세서는 한꺼번에 여섯개까지 화면을 분할할 수 있으며 자체 그림편집기를 지니고 있어서 그래픽 워드프로세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백상이 발표될 초기에는 수많은 버그(bug)들과 부실한 사용자 설명서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작동중 프로그램이 정지하거나 파일을 찾지 못하는 등의 결정적인 버그가 잡히고, 새롭게 디자인된 화면과 색상으로 된 개정판들이 나오면서 현재 백상은 매우 안정적인 워드프로세서로 알려져 있다.

1.0판은 한정된 메모리를 기반으로 문서를 편집했던 관계로 크기에 제한을 받았지만 2.0판부터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 구조로 매핑(mapping)하여 백과사전과 같은 많은 분량의 데이터도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임당과 함께 백상은 국내 워드프로세서로서는 드물게 스캐너로부터 직접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최근 사임당이 이 기능을 제외시킴으로써 유일하게 스캐너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가 되었다. 로지텍사의 스캐너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백상의 그림편집기를 사용하여 그림을 직접 읽어들이 수 있으며, 읽어들이 그림은 돋보기 편집을 통해 세 부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입력된 숫자를 사용해 점 선 막대 원 그래프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판은 컬러프린터를 사용

해 컬러로도 그래픽과 도표 등을 인쇄할 수 있는 그래픽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보강했다. 프린터에 따라 도트용과 데스크젯용, 레이저 프린터용으로 구분되어 판매된다.

마이글벗+ 한글 의식해 만든 워드프로세서

- 개발자: 삼성전자
- 문의처: 소프트라인(706-2220)
- 가 격: 5만9천4백원(부가세 포함)

수많은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의 워드프로세서를 제치고 4명의 대학생이 습작처럼 만든 워드프로세서 한글이 국내 시장을 휩쓸자 이 아성을 깨뜨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워드프로세서가 바로 마이글벗+(플러스)다.

마이글벗+는 원래 삼성전자의 컴퓨터를 구입하면 함께 제공됐던 '마이글벗'이나 '글벗' 시리즈보다는 사임당이나 한글 등의 그래픽 워드프로세서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또한 프린터에 따라 도트용 레이저용 잉크젯용으로 구분되지 않고 도트프린터에서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린터를 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쟁 워드프로세서를 겨냥하고 만든 제품인 만큼 풀다운 방식의 메뉴를 채택하였으며 마우스도 지원되

어 사용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또 한글 한자 영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와 여러가지 글자체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계산 기능을 통해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숫자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판을 보면서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존 워드프로세서들이 자판을 보여준 상태에서 기껏해야 한 줄 정도 입력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마이글벗+에서는 화면 하단에 선택된 자판이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나타나 있으므로 자판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키보드와 모니터를 번갈아 살펴볼 필요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체 한글 입출력 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한글이 필요없다는 점이 기존 글벗 시리즈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며, 마이글벗+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쇄물이나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점이나 마우스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메뉴가 다양한 반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항들은 추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글박사 쪽박사 후속탄

- 개발자: 한컴퓨터(주)
- 문의처: 한컴시스템 (554-3321)
- 가 격: 6만8천원

92년 워드프로세서 자격검정시험이 실시되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 검정용 신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 중에는 기존 워드프로세서 기능 일부를 보

강하거나(한글의 경우 블럭연산, 하나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도표내 자동선그리기), 기능의 일부를 제외한(삼보 보석글V의 축소판인 꼬마보석글) 제품들도 있지만 글박사와 같이 새로운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글박사는 한글 2000워드, 쪽박사, 걸개박사, 사임당 등으로 잘 알려진 한컴퓨터(한컴퓨터연구소의 새 이름)가 워드프로세서 자격검정용으로 92년 11월에 발표한 신제품이다. 자격검정용으로 개발된 다른 워드프로세서들과 마찬가지로 글박사도 플로피디스크

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블럭 연산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글자속성을 지원한다.

한편 자격검정용으로 보기에 드물게 마우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눈금자에 나타난 탭을 통해 자유롭게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문단폭 조절 등을 할 수 있다. 또 각각의 명령어들을 작은 그림(icon)으로 바꾸어 나열한 아이콘바(icon bar)는 국내 도스용 워드프로세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명령어 조작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자체 한글입출력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문서파일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므로 자격검정용으로 사용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번쯤 사용을 고려해볼 제품이다. 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편집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에 커다란 파일을 작성할 수는 없으며 글자 크기를 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훈민정음 윈도우즈용 국산 워드 프로세서

- 개발자: 삼성전자
- 문의처: 소프트웨어인 (706-2220)
- 가 격: 7만7천원

최근 한글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훈민정음은 그중 하나로서 윈도우즈 환경을 기반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풀다운 메뉴를 중심으로 명령어를 선택하는 기존의 운영방법 외에도 각종 기능을 그림으로 대신한 아이콘들이 모인 아이콘 막대를 중심으로 마우스를 사용,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명령어를 외우거나 메뉴의 위치를 찾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문서작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민정음은 사용자가 작성한 화면상에서 출력될 문서의 형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위지위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과 선분, 사격형 타원 등의 각종 도형과 직선 곡선 등의 각종 도형을 문서와

함께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BMP PCX TIF GIF 등 다양한 그림 파일을 문서에 삽입할 수 있으므로 다채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최대 1천6백80만가지 색상의 사용이 가능하며 6에서 1백27포인트까지 글자크기를 사용할 수 있고 무제한의 다단편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윈도우에 기반을 둔 모든 출력기와 비디오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글윈도우즈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체 패키지를 구입해야 하므로 가격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 도스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속도가 늦으며 한글 윈도우즈의 실행에 부담이 없는, 386 SX급에 메모리 2MB 이상의 시스템에서 운영이 바람직하다.

93년에 발표될 2.0판에는 개체연결포함기능(OLE, Object Linking & Embedding)과 동적 데이터교환(DDE, Dynamic Data Exchange)기능이 보장될 것이라고 한다.

한글워드, 워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작품

- 개발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 문의처: 552-9505
- 가 격: 한글 워드 1.2판(29만7천원, 부가세 포함) 워드 2.0판(49만5천원, 부가세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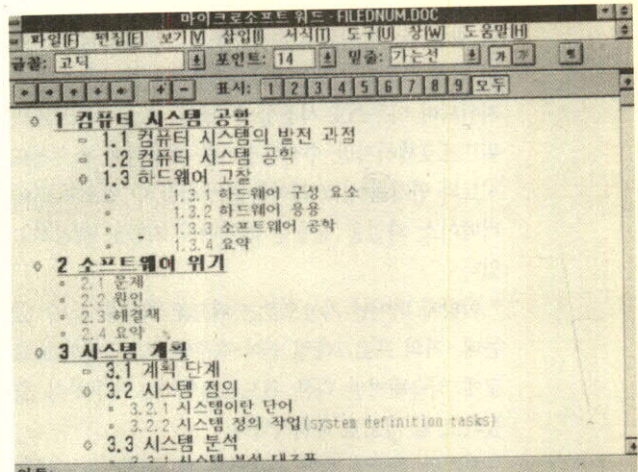
한글 윈도우즈(Windows)가 발표된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윈도우즈 열기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윈도우즈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변변한 응용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워

드, 한글엑셀과 삼성전자의 훈민정음, 삼보컴퓨터의 보석글 프로 등이 그것인데 그중에서도 한글워드는 눈에 띄는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라 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워드(Word) 2.0판이 발표되어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글워드는 영문제품을 한글화한 것으로 1.2판까지 발표되었다. 입력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을 마우스만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한글 윈도우즈가 지원하는 다양한 외곽선 글꼴을 사용하여 미려한 품질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자료교환이 잦은 사용자라면 한글 워드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개체연결포함기능과 동적 데이터 교환기능이 제공되는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로는 한글 워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글 워드에는 자체에 그림편집기와 수식 편집기를 지니고 있으며 수식편집기의 경우 윈도우즈라는 환경의 장점을 마음껏 느끼게 해줄만큼 편리하게 사용된다. 또한 문서의 여백이나 탭간격, 행간격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눈금자와 각종 도구들을 모아놓은 리본이 제공되므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한번에 13개까지 단절정이 가능하며 베이식(BASIC)언어와 유사한 매크로(macro)기능을 제공



MS-워드를 한글화한 한글 워드 1.2판

하므로 워드프로세서의 고급기능을 즐겨쓰는 사용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매크로를 만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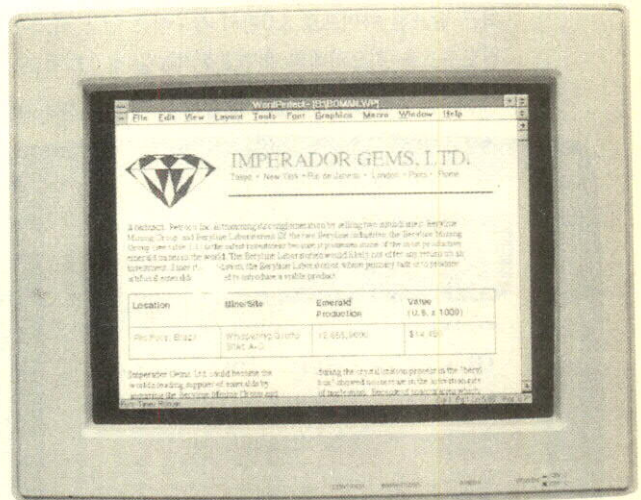
큐닉스의 으뜸글과 한글 1.52판, 하나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를 아무런 문제없이 불러들일 수 있지만 조합형의 특수기호나 완성형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수문자들은 사라진다. 단점으로는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체의 수가 적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고가의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처리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워드퍼펙트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여

- 개발자: 미국 워드퍼펙사
- 문의처: 소프트라인(706-2220)
- 가 격: 워드퍼펙 5.1판(50만원) 워드퍼펙 네트워크 서버(49만5천원) 윈도우즈용 워드퍼펙(50만원) 워드퍼펙 익스큐티브(29만5천원, 이상 부가세 별도)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미(英美) 문화권 나라들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가 바로 워드퍼펙(Word Perfect)이다. 워드퍼펙사는 텍스트(문자)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워드프로세서로서의 뛰어난 기능과 함께 사용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개정판을 만드는 회사로서도 명성이 높다.

국내에도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워드퍼펙



워드프로세서의 대명사로 불리는 워드퍼펙 5.1판

은 한글처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4.2판과 5.0판 5.1판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5.0판부터는 풀다운 메뉴가 지원되며 마우스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텍스트모드의 워드프로세서지만 수식편집기를 제공하며 스프레드시트와 연계해 링크 레이블을 생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활용한 메일머지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뛰어난 기능으로는 매크로 기능을 들 수 있는데,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인 워드퍼펙트의 매크로에 익숙해지면 다른 워드프로세서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매력적이다.

하지만 한글과 함께 사용하는 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오른쪽끝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한글식 정렬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한글과 프린터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자유

롭게 문서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화면에서 인쇄될 결과를 미리 볼 수는 없지만 그림과 함께 편집이 가능하며 숨겨진 글자속성 및 조판문자 등을 확인하는 숨겨진 코드보기(reveal code)기능 등은 워드퍼펙만이 지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드퍼펙을 지원하는 각종 유틸리티들이 제3의 소프트웨어업체들에 의해 수없이 공급되는 점은 워드퍼펙의 명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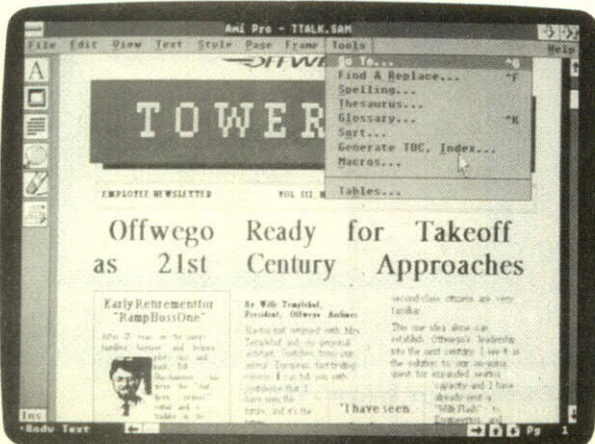
최근에는 윈도우즈용으로 윈도우즈용 워드퍼펙이나 사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뛰어난 파일관리기능(navigator)과 파일보기가 별도로 제공된다. 하지만 한글 윈도우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영문 워드의 경우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아미프로 강력한 위지위그 실현

- 개발자: 미국 로터스사
- 문의처: 로터스 코리아 (551-2773)
- 가 격: 66만원(부가세 포함)

스프레드시트의 대명사인 1-2-3를 만든 로터스사의 워드프로세서로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최근 발표된 아미프로 3.0판의 경우에는 영문 워드나 윈도우즈용 워드퍼펙의 화면표현기능을 보장하여 모

워드퍼펙 못지않은 기능을 지닌 로터스사의 아미 프로



든 문자와 그림이 인쇄물과 화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위지위그를 실현하였으며 사용법과 익히는 과정 모두 간편하다.

기본적인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 기능은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미프로(Ami Pro)만의 독특한 기능도 지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타일 보기(style view)기능을 들 수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들이 스타일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스타일들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한 것. 양식문서(form sheet)를 만들어 놓고 문서작업을 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머지(smart merge)라는 독특한 메일머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초보자라도 쉽게 메일머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워드나 워드퍼펙이 아이콘으로 구성된 도구막대를 보이거나 감추는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반해 아미프로의 클린스크린(clean screen)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몇개의 도구만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이밖에 아미프로만의 특징으로 각종 색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진 스마트아이콘(Smart Icon)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각종 명령어들을 한번의 마우스 누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들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자

신이 원하는 아이콘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윈도우즈 3.1의 기능중 하나인 드래그/드롭(drag & drop)기능을 지원함은 물론 패스트포맷(fast format)이라는 아미프로만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글자나 문단의 속성을 단번에 바꾸어 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워드퍼펙이나 워드에 가리워 아직은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뛰어난 기능으로 점차 사용자가 늘고 있다. 한글 윈도우즈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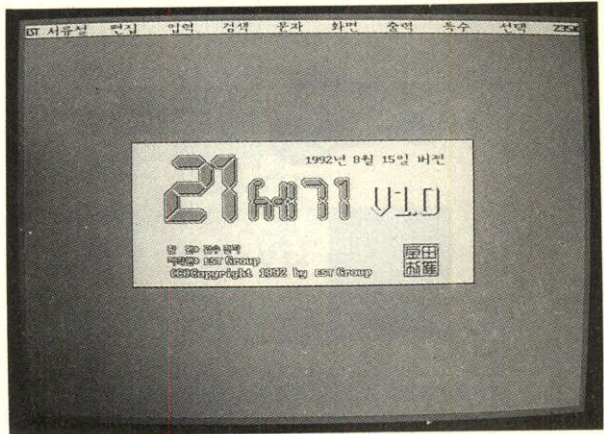
21세기 워드프로세서 대학생들이 만든 공개 프로그램

- 개발자: EST그룹
- 프로그램 위치: 하이텔(HITEL) 큰틀 자료실 967번

김장중 전준희 박우진 최봉우 등 대학생 4명이 개발해 92년 7월에 발표한 워드프로세서로는 보기 드문 공개소프트웨어. 현재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93년 중반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한글에 정식 도전장을 띄울 것이라고 한다.

한글을 사용하던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메뉴의 구성 및 단축키는 한글과 유사하며, 이외에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문서의 개수를 6개까지 지원하는 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고려한 흔적이 눈에 띈다. 앞으로 6백40KB의 기본 메모리와 EMS XMS 등 확장 메모리의 사용은 물론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VMS기법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현재까지 발표된 8월 31일 버전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메모리를 사용하면 최소 한문서당 3백여 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편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스 환경에서 운영되지만 마우스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자체개발한 벡터폰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벡터폰트의 사용으로 인해 가로 세로 6배까지의 큰 글자도 인쇄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판될 제품에는 도표편집기와 수식편집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깊없는 대학생 4명이 만든 21세기 워드프로세서 초기화면

이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개수의 제한없이 차례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순환자판(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에는 한글과 영문 두개의 자판만을 교대로 왕복하도록 되어 있다)기능이라든가 다양한 화면보호기능(screen saving)이 제공되는 점은 21세기 워드프로세서의 아기자기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는 시험판 단계이기 때문에 기능의 누락도 많고 구현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기 전 사용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려는 태도는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사용자와 함께 하려는 자세가 이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방사우 대표적인 국산DTP

- 개발자: 휴먼컴퓨터
- 문의처: 553-0818
- 가 격: 1.2 사무용(18만원) 1.5 전문용(90만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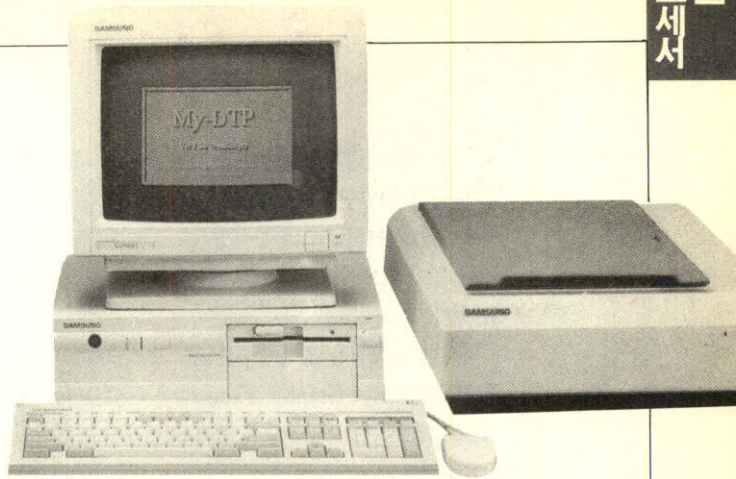
상 부가세 별도)

문방사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윈도우즈에 기반한 탁상출판(DTP) 소프트웨어다. 다른 DTP들이 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출력 및

그림 파일로는 PCX BMP TIFF CUT 등 파일을 지원하며 그림의 크기조절이 뛰어난 편이다.

DTP로는 보기 드물게 도표편집기능을 제공하며 도형메뉴가 탁월함을 느끼게 한다. 즉 기존의 DTP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원 모서리가 타원처리된 다각형 및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미 그린 도형을 개별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하여 이동시키거나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형의 변환도 가능하여 직선으로 처리된 다각형을 곡선으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곡선처리된 다각형을 직선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DTP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한 곳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단을 설정하고 단편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번 사용자가 단을 설정하고 단연결을 해야 하는 점이라든가 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단의 일부를 해제



삼성전자의 마이 DTP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마우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더블클릭(double click)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이나 지원언어가 KS표준코드(KS-5601)로 제한적이어서 진정한 DTP의 의미를 구현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드리턴이나 공백문자 등의 숨겨진 코드를 보여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세부 편집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장원급제 저가형DTP

- 개발자 : 금성사
- 문의처 : 630-3202
- 가 격 : 19만8천원(부가세 포함, 한자확장팩 별매)

금성사는 하드웨어 전문업체이지만 장원급제를 통해 소프트웨어에도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장원급제는 전문적인 전자출판을 지향하는 출판사나 기업체보다는 작은 규모의 회지나 소식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겨냥한 저가형 DTP 프로그램으로 6백40KB 이상의 메모리를 지닌 AT급 컴퓨터 이상이면 어디서나 무난하게 실행된다.

프로그램의 크기도 큰 편이 아니어서 20MB의 하드디스크를 지닌 시스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비디오카드 등의 제약도 없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려면 추가로 한자폰트를 구입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서체의 수도 한글 명조/고딕, 영문 명조/고딕/베이로만/헬세라 4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글자의 크기는 1포인트에서 9백99포인트까지 자유

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글자속성은 강조/경사/밑줄/윤곽/첨자 등이다. 음영의 경우에는 패턴의 선택도 가능하며 0에서 100%내의 음영(명암)을 줄 수 있다.

장원 하나 등 국산 워드프로세서 문서와 워드퍼펙 워드스타 등 외국 워드프로세서 문서파일을 변환없이 읽어들이 수 있으며 KS완성형 코드로 저장된 일반 아스키(ASCII)문서도 읽어들이 편집할 수 있다. D-

회지나 소식지를 만드는데 적합한 장원급제



TP의 경우 이렇게 외부문서를 읽어들이는 기능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그림문서를 불러들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원되는 그림문서양식으로는 PCX GIF TIF 등이 있으며 자체 그래픽 포맷인 GSI도 지원하고 있다.

섬세한 그래픽을 인쇄해주는 포스트스크립트 그림 포맷(Postscript Graphic Format)을 GSI로 바꾸는 기능도 제공되며 프로그램과 함께 50여개의 그림파일

을 제공하는 것도 다른 DTP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

입력가능한 특수문자로는 러시아어를 포함해 괄호 문자 패션 기술 및 단위기호 등을 들 수 있으며 도형 처리도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외곽선 자형을 사용하므로 하드디스크에서 자주 읽고 쓰기 때문에 화면의 입출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고 6백40*4백80의 기본화면만을 지원하는 단점도 있다.

오토페이지 다양한 서체 제공

- 개발자: 코아기술
- 문의처: 538-6999
- 가격: 사무용(45만원) 전문가용(2백90만원)

도스를 기반으로 하는 오토페이지(Auto Page)는 PC용 DTP로 비교적 늦게 발표됐지만 기존 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서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편한 조작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다.

오토페이지의 서체는 매킨토시의 서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서체에 따라 사무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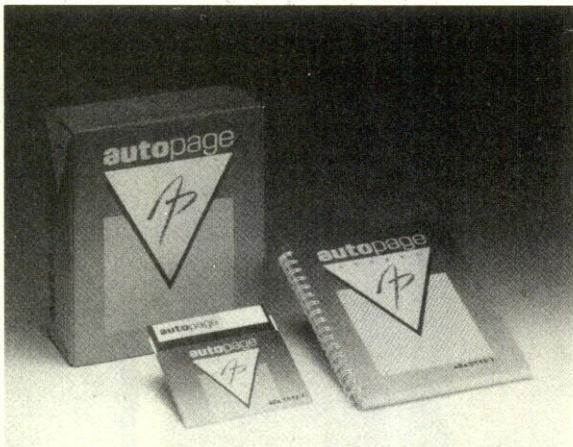
무용의 경우 한글 4가지, 영문 35가지, 한자 1가지 서체를 제공하며 전문용은 한글 15가지, 영문 45가지, 한자 7가지의 서체가 제공된다.

이렇게 다양한 서체가 제공되지만 화면에는 명조와 고딕의 두가지 서체만이 나타나며 기타 서체들은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을 택하므로 위치위그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당혹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모든 서체는 4포인트에서 3백포인트까지 0.25포인트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다.

오토페이지는 4MB 이상의 메모리를 가진 AT 이상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비디오키드로는 VGA만을 지원하며 표준 VGA모드외에 8백*6백모드로도 실행할 수 있다. 프린터로는 포스트스크립트 레이저프린터, HP 호환모드를 지원하는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 등으로 출력이 가능하며 인화지나 필름으로도 출력할 수 있다.

외부문서파일로는 완성형 한글코드를 사용한 아스키 파일을 읽어들이 수 있으며 한글의 문서를 오토페이지로 읽어들이 수 있는 별도의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파일로는 PCX TIF IMG EPS파일 등을 읽어들이 수 있지만 색상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레이스케일(gray scale)로 처리한다.

오토페이지 역시 라인 에디터 기능과 풀 스크린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체에 각종 특수한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서체외의 다른 특징으로는 하나의 문서를 읽고 도표 그림 도형 등의 각 내용으로 나누어 저장하는 것으로 필요할 경우 각각의 내용을 불러다 다른 문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실행취소기능(UNDO)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매킨토시의 서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오토페이지

팝스(POPS) 샘플 윈도우즈 기능

- 개발자: 삼성데이터시스템
- 문의처: 560-3041
- 가 격: 40만원

팝스는 삼성전자가 만든 마이 DTP와는 전혀 다른 계열의 프로그램으로 한글 윈도우즈를 기본 환경으로 작동된다. 팝스는 윈도우즈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면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으며 한글 윈도우즈 2.1 판 이상, PCL-4 이상의 페이지 언어를 사용하는 레이저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방사우와는 달리 도구막대를 메뉴 하단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윈도우즈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한글 윈도우즈 3.0판의 윤곽선 자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한글 윈도우즈 2.1판을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체 폰트를 사용한다.

지원되는 외부 문서파일로는 KS완성형 한글카드로 저장된 아스키 파일과 행정전산망용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를 읽을 수 있으며 PCX BMP TIF 등의 그림파일을 읽을 수 있다.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한자사전과 약어사전을 제공하며 스타일과 색상 지정이 가능하다.



윈도우즈 환경의 한글DTP 팝스(POPS)

고유한 특징으로는 샘플 윈도우즈(Sample Windows), 즉 글자체를 지정하거나 페이지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미리 견본을 살펴본 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매크로만은 못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아이콘으로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11가지의 선 사격형 등의 도형처리가 가능하고 8가지의 색상과 패턴을 지정할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서체의 크기가 최대 48포인트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명조/고딕 2가지 서체만을 지원하며 또한 음영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글 페이지메이커 DTP의 새장 열어

- 개발자: 미국 엘더스사
- 문의처: 인포텍 (516-1993)
- 가 격: 한글 페이지메이커 3.01(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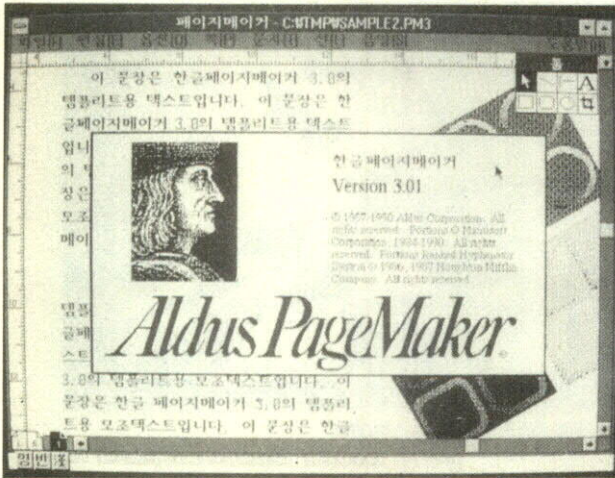
PC에서 DTP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미국 엘더스(Aldus)사의 페이지메이커(Page Maker)다. 1980년대초에 발표된 매킨토시용 페이지메이커가 한글화되어 등장한 것이 한글 페이지메이커로 외국에서는 4.0판이 발표되었지만 한글은 3.01판이 92년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글 페이지메이커는 한글 윈도우즈 3.01에서 작동되며 윈도우즈가 실행되는 일반적인 하드웨어와 비디

오카드 및 프린터를 지원한다. 또 한가지 특징으로는 매킨토시의 프린터를 사용하여 1천2백dpi(dot per inch)의 필름출력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컬러문서의 경우 컬러프린터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컬러별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페이지메이커는 IBM PC용 DTP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벤추라 퍼블리셔 등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문자 블럭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다루는데 이는 크기와 모양등을 자유로이 변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자 블럭의 크기가 추가되는 문자의 길이에 따라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제공되며 자동문자흐름 기능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페이지를 다단으로 편집하려면 기존 DTP와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한글 페이지메이커 3.01 화면

요한다. 즉 한번 문자 블럭을 배치한 다음에는 단의 수를 바꾸거나 폭을 바꾸는 경우 문자가 이런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지 않으므로 마우스로 매번 바꾸어 주어야만 한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한 페이지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것도 문자 블럭의 덕택이다.

외부문서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로 작성된 문서는 문자와 단락양식 탭 들여쓰기 등을 그대로 읽어들이며, 으뜸글2.0, 윈도우즈의 문서작성기(Write), 하나워드, 기타 완성형 아스키문서 등을 지원한다. 그림의 경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완벽한데 MSP BMP TIF PIC PNT HPGL C-GM NAPLPS PLT EPS 등의 양식은 물론 윈도우즈용 메타파일도 지원된다.

Q에디터 빠른 속도를 자랑

- 개발자: 미국 쉘웨어사(SemWare)
- 프로그램 위치: 하이텔 자료실

에디터는 흔히 워드프로세서의 부분집합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보다는 문자 파일을 전문으로 편집하는 도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에디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프로그래머들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에디터는 처리속도가 빨라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Q에디터는 Quick의 약자인 Q를 사용한 에디터로 다른 어떤 에디터에도 뒤지지 않는 속도로 인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Q에디터의 환경설정파일인 Qconfig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색상, 메모리 사용 방법, 사용하고자 하는 핫키 등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 것이 바로 Q에디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에디터가 프로그래머의 효율을 높여주고 때로는 번거롭고 힘든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프로그래머만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신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는 경우 이를 워드프로세서로 불러 편집하기 보다는 간단히 문서의 내용을 보여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거나 Q에디터와 같은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워드프로세서와 에디터의 단축키 배열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에디터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습관적인 손놀림으로 실수를 할 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Q에디터의 키배열을 한글의 그것과 같게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Q에디터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에디터는 꾸준히 버전업을 거쳐 현재는 2.15판까지 공급되고 있으며 54.95달러를 내면 정식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셰어웨어(shareware)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설명서가 수백페이지에 달하므로 정말로 뛰어난 기능의 Q에디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라인블럭과 컬럼블럭을 지원하며 검색치환 등의 기능도 제공된다. 또 줄단위 인쇄 블럭인쇄 등은 물론 매크로를 사용하여 소문자를 대문자로, 혹은 그 반대로 바꿀 수도 있다. 한번에 두개까지 문서를 편집할 수 있으며 조합형 완성형 한글과도 잘 조화가 된다.

클라이 프로그래머를 위한 통합환경

- 개발자: 아성소프트
- 문의처: 927-0350
- 가 격: 3만3천원

클라이(CLIE, Computer Language Integration Environment)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개발시 통합환경을 지원하는 에디터(editor)로 2.0판까지는 '클라이'라고 불렀지만 최근 3.0판을 발표하면서 우리말 이름을 짓자는 의미에서 '클아이'라고 바꾸었다.

클아이는 프로그래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스(source) 코드의 작성에서부터 컴파일(compile) 링크(link)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환경 에디터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볼랜드사의 터보C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로 터보C의 통합환경 에디터를 사용해본 사람에게는 클아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에디터로서의 역할도 비중이 있지만 통합환경으로서 클아이의 역할은 다른 수많은 에디터와 구별된다. 클아이를 사용하면 통합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넷터킷사의 클리퍼나 어셈블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언어 등에서도 통합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에디터와 워드프로세서를 가장 잘 구분해 주는 특징은 바로 문장의 단락처리다. 에디터는 전체화면을 쓰는 것이건 줄단위로 처리하는 것이건 모두 일일이

줄바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클아이는 통합환경 에디터답게 단어자동정렬기능 및 파일자동저장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라인의 분석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라인분석기능이란 프로그램 작성시 괄호로써 처리한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괄호 열고닫음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또 오른쪽과 왼쪽의 괄호가 각각 몇번씩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으로 클아이의 제작자가 실제 프로그램의 작성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가된 것이다.

이외에도 키를 계속 누르고 있지 않더라도 한번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커서키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이라든가 편집중인 파일을 현재 커서를 기준으로 16진수로 덤프하여 보여주는 기능 등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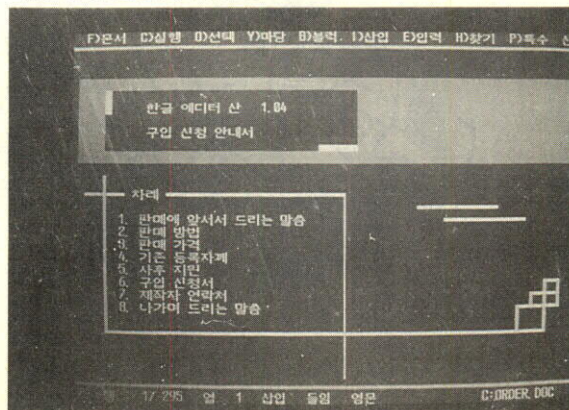
이렇게 뛰어난 기능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클아이는 몇가지 이유에서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클아이만의 단축키를 사용한 것으로, 기존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들이 8비트 시절 명성을 떨친 워드스타 계열의 블럭삭제키나 커서이동키를 사용하는데 비해 클아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키를 사용한다. 최근 발표되는 많은 에디터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각종 기능키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가 되는 점이다. 추후 개정판에서 기능키를 사용자가 임의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말 기능을 좀 더 보강한다면 외국 제품에 결코 뒤지지 않는 통합환경에디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MS에디터 도스 5.0과 함께 공급

- 개발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 프로그램 위치: MS도스 5.0에 포함

MS에디터는 MS 도스 5.0판과 함께 공급되는 것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edit.exe와 함께 qbasic.exe 같은 파일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에디터가 Q베이식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도스 4.0판까지는 라인에디터인 edlin이 공급되었지만 5.0판부터는 기존의 edlin과

박규현이 만든 한글에디터 산 1.04



함께 풀다운 메뉴와 단순한 검색치환메뉴 및 블럭편 집기능을 제공하는 폴스크린 에디터인 edit가 지원되고 있다.

튀니튀니 해도 edit의 가장 좋은 점은 사용자가 별

도의 에디터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필요없이 운영체제 인 도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글 도스 5.0판을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구성된 메뉴 및 도움말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TG에디터 향수어린 초창기 에디터

- 개발자: 삼보컴퓨터
- 문의처: 390-2114

완성형과 조합형 코드를 위한 두개의 제품이 있다. 삼보컴퓨터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번들로 공급되지만 기능면에서는 다른 에디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

히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패선처리가 뛰어난 편이며 KS-5601 코드의 특수문자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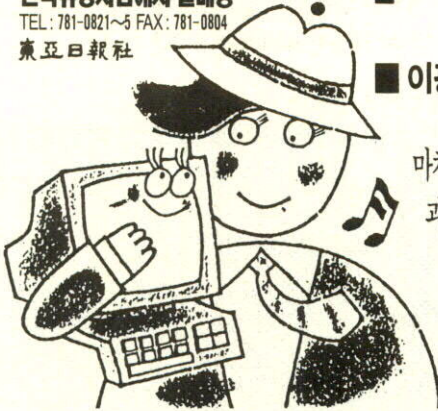
보석글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다른 에디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컴퓨터 보급초기에는 한몫을 해내던 에디터로 커서이동 및 블럭설정기능이 돋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중 윈도우즈 처리가 가능하고 각종 특수기능들이 부가된 에디터들이 선보이면서 점차 사용자층이 줄어들고 있다.

컴퓨터란 말만 들어도 위축되는 사람, 도대체 컴퓨터가 무엇인지 알려는 사람, 정보화사회에서 아껴 좀 펴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

A5판·296면/4,500원
전국유명서점에서 발매중
 TEL: 781-0821~5 FAX: 781-0804
 東亞日報社

!! 누가 컴퓨터를 두려워하는가

■ 이광형 지음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컴퓨터의 모든 것을 일깨워주는 과학기술원 이광형교수의 명강의. 읽어가는 동안 "컴퓨터가 이렇게 쉬운 것일!" 하고 당신은 무릎을 치게 된다. 다 읽고난 뒤는 벌써 컴퓨터 체질이 되어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